

芳香性 本草 분류를 통한 香氣療法 研究

엄지태¹ · 김경신¹ · 강정수¹ · 김병수¹ *

The Study on Classification of Aromatic Herbs in Oriental Medicine for Aromatherapy

Uhm Ji-Tae¹ · Kim Kyoung-Shin¹ · Kang Jung-Soo¹ · Kim Byoung-Soo¹ *

¹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agu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In western, aromatherapy uses essential oils to prevent and treat disease, and is one of the ways to stay healthy. In oriental medicine, there was also a similar medical treatment using aromatic herbs for a long ago.

The existing research of oriental medical herbs is mainly focused on the theory of qi and flavor(氣味論). But on aromatherapy used with aromatic herbs,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aromatic herbs by aroma.

So 『xiāng pǔ, 香譜』 and 『běn cǎo gāng mù, 本草綱目』 mainly contain the study about clinical effects of aromatic herbs. And 『běn cǎo pǐn huì jīng yào, 本草品彙精要』 mainly explains the effects of medical herbs with five aroma classification of xīng(腥), shān(膻), xiāng(香), chòu(臭), xiǔ(朽). The former one makes more clinical uses of medical herbs, and the latter one grows up the theory of medical herbs.

This study is expected to have a good influence on aromatherapy and classification of oriental medical herbs.

Key words : Aromatherapy, Oriental medicinal Herbs(本草), qi and flavor(氣味)

I. 序 論

香氣療法은 식물에서 추출한 芳香性 精油를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 치료하며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방법이다¹⁾. 아울러 香油療法이나 芳香治療法, 芳香療法 등도 역시 향기요법의 범주라고 할 수 있다²⁾. 이러한 향기요법은 후각을 통해

뇌의 신경계로 작용을 하여 심리학적, 생리학적으로 면역계, 대사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자연요법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³⁾.

韓醫學에서도 일찍이 쯤이 몸과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았고 서양의 향기요법처럼 정유를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향기요법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였음을 문헌을 통하여 알 수 있다. 『素問·異法方宜論』에서 ‘쑤’를 사용한 방법이나, 『素問·奇病論』에서 ‘蘭’을 사용한 기록이 있으며, 『華陀神醫秘傳』, 『景岳全書』, 『千金要方』 등 많

* 교신저자: 김병수,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E-mail: kbsoo25@dju.kr

투고일 : 2011년 7월13일 확정일 : 2011년7월20일

1) 손숙영. 향기요법. 서울, 글이랑, pp60-79, 1987.

2) 앤드류 스텐웨이. 박지명. 자연요법백과, 서울, 하남출

판사, pp176-179, 1994.

3) 이세희. 아로마테라피. 서울, 홍익제, pp25-49, 1995.

은 고대 한의 서적에서 향기를 이용한 치료를 언급하고 있다⁴⁾.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약재를 가루나 線의 형태로 만들어 태워서 그 향을 맡거나, 약재를 은은하게 가열하여 거기서 나는 향을 쫓거나, 약재를 끓이면서 나는 냄새와 수증기를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삼았다. 향기요법에는 다양한 종류의 本草 중에서도 특히 향이 강한 방향성 본초가 주로 사용되었다. 방향성 본초는 다른 본초들과 마찬가지로 氣味論을 중심으로 效能과 主治가 연구되었다. 하지만 氣味論은 주로 약의 內服을 중심으로 한 관점이고, 향기요법은 주로 처방을 태워서 향을 맡아서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氣味論을 중심으로 향기요법에 사용되는 방향본초를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은 향기요법의 활용을 위해서 다양한 향기요법을 정리하여 향을 기준으로 방향 본초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역대 본초서적에서 향기요법에 주로 사용되는 방향 본초의 효능, 주치 그리고 분류를 통해 향을 기준으로 본초분류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本 論

1. 한의학의 다양한 香氣療法

香氣療法은 약재를 태워서 향을 맡는 熏法이 가장 중심이지만, 넓게는 芳香性本草를 가루내어 코에 집어넣거나 주변 생활공간에 비치하여 방향제처럼 향을 맡는다던가, 芳香性本草를 煎湯하여 생기는 수증기를 맡거나, 芳香性本草가 첨가된 목욕물로 목욕하는 방법 등을 모두 포괄하는 한의학 치료방법 중 하나이다.

唐代的 『千金要方』, 『外臺秘要』, 宋代的 『聖濟總錄』, 明代的 『景岳全書』, 『壽世保元』 등에서 熏法, 香袋法, 香枕法, 香衣法, 香瓶法, 香脂法, 香汁法, 香豆法 등 다양한 향기를 이용한 치료법들 소개되어 있다. 이처럼 香材를 이용한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지만, 이 중에서 향을 직접적으로 코로 맡아서 치료하는 방법 중심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熏法이란 孫思邈의 『千金要方』에 제시되기를, 정제한 熟艾를 종이에 얇게 깔고 그 위에 유향분말을 고루 뿌린 뒤 종이를 말아 불에 붙여 藥紙의 원통구에서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⁵⁾으로 기록되어 있다. 현대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향기요법의 방법과 가장 유사하며, 가장 작용이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방법이다. 熏法에 사용된 약물로는 주로 款冬花가 많이 사용되었으며, 艾葉, 雄黃, 鵝管石, 佛耳草, 白礬, 南星, 鬱金 등도 사용되었다. 熏法은 久咳나 久嗽등을 주로 치료하고, 현대의학에서는 향문질환이나 안과질환에도 응용되었다.

香瓶法은 『壽世保元』을 보면 콧구멍 안에 생긴 疥瘡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약물을 갈아서 瓶內에 두고 향기를 맡거나, 손에 묻혀서 직접 疥瘡 부위를 문질러 활용하는 것인데 濕疹이나 만성두통 등에 응용할 수 있다⁶⁾.

香袋法이란, 香袋나 香囊을 침상 아래나 옷에 휴대함으로써 惡氣를 쫓아내거나 傷寒의 熱病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다. 의학적으로는 癩疹, 피부 소양증을 치료할 수 있다. 또 香枕法은 『壽世保元』을 보면 침상에 麝香을 놓아 惡夢을 방지하는 법을 언급하고 있는데, 향을 이용하여 쾌면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여겨진다. 香衣法은 의복에 약물을 뿌리거나 놓아 몸의 냄새를 제거하며, 脾胃寒氣, 積滯證을 치료한다. 香袋法이나, 香枕法, 香衣法은 옷이나 침상 등의 우리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향을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하려고 한 시도로 생각된다.

香脂法은 香脂를 이용하여 婦人의 장식, 미용 등에 사용되거나, 細末膏를 만들어 小兒의 顛門에 붙여 吮乳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다. 香汁法

4) 정용석 외. '香譜'에 나타난 향기요법에 대한 고찰. 한방재활의학회지 9(1):318-327, 1999.

5) 孫思邈. 千金要方. 서울, 대성문화사, pp311-315, 1995.

6) 龔廷賢. 壽世保元. 台北, 更業書局有限公司, pp102-103, 1975.

7) 龔廷賢. 壽世保元. 台北, 更業書局有限公司, pp102-103, 1975.

은 『千金要方』을 보면 藥汁을 머금어서 口臭나 口瘡등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口脣炎이나 口內炎 齒齦腫痛 등을 치료하는 방법⁸⁾으로 언급하였다. 이러한듯 좋은 냄새를 내는 香材를 이용하여 생활미용의 수단으로도 활용되었다.

이와 같이 향은 다양한 활용방법을 통하여 생활 속에서 미용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나아가 질병 예방과 다양한 질병 치료에 응용되었다.

2. 香氣療法の 常用本草 분석

한의학에서 향기요법의 역사는 甲骨文字에서도 향에 대한 기록이 있을 정도로 오래 되었으며 唐代에 다른 나라와의 교류가 잦아지면서 외국의 다양한 방향성 본초들이 중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더욱 활발하게 활용되고 연구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그 당시 本草書인 『新修本草』, 『本草拾遺』 등에 외국에서 수입한 香藥이 많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⁹⁾. 특히 李珣의 『海藥本草』에는 124종의 외국에서 들어온 본초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는데 주로 丁香, 乳香, 茅香, 迷迭香, 降眞香, 甘松香, 安息香, 蜜香 등의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香藥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그 외에도 孫思邈이 지은 『千金要方』과 『千金翼方』, 王燾의 『外臺秘要』 등에 향을 이용한 치료법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¹⁰⁾. 宋代에는 이러한 향기요법이 전성을 이루게 되며 『太平聖惠方』, 『聖濟總錄』, 『太平惠民和劑局方』 등에 많은 양의 향기요법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¹¹⁾. 향기요법이 성행함에 따라 향기요법에 대한 전문서적들이 많이 발간되는데 洪鄒의 『香譜』, 范成大的 『桂海香志』, 葉廷珪의 『名香譜』, 沈立之의 『香譜』, 武風의 『公庫香譜』, 張子敬의 『讀香譜』, 顏持約의 『香史』, 陳敬의 『新纂香譜』 등이 있다¹²⁾. 이렇듯 다양한 香材

에 관한 저술이 많은 것으로 보아 芳香本草에 관한 연구와 사용이 활발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이 중에서 洪鄒의 『香譜』는 『四庫全書』를 통해 지금까지 전해지는 가장 대표적인 香材 서적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향과 芳香本草에 관하여 찾아볼 수 있는 서적으로는 明代의 『本草品彙精要』와 『本草綱目』이 있다. 『本草品彙精要』는 本草를 설명하는 24가지 기준 중에 香(臭)이 포함되어 있어서 本草의 香이 藥性を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本草綱目』은 明代까지의 다양한 본초에 관한 모든 것을 정리하고 集成한 저작으로, 35종의 '香木'과 56종의 '芳草'를 구분하였다.

이후 여러 醫家들에 의해 芳香本草에 관하여 연구되었지만 대부분은 寒熱溫涼의 四氣와 酸苦甘辛鹹의 五味의 氣味論을 중심으로 본초 약성을 연구하였기 때문에 향을 중심으로 한 芳香本草의 개별적인 약성 연구는 거의 없고, 芳香本草의 芳香성에 관한 총괄적인 연구만 있을 뿐이다.

그 중에서 芳香本草의 芳香성에 관한 총괄적으로 정리된 부분을 살펴보면, 본초의 香은 脾胃로 들어가서 능히 益脾開胃시켜서 脾胃의 運化작용을 도울 수 있으며, 穢濁之氣에 감응하였을 때 頭昏胸悶, 嘔吐腹痛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약재의 芳香성이 충분히 이러한 穢濁을 없애서 기혈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芳香성은 開竅작용을 하여 安心氣하고 舒神하며 開竅通閉, 蘇醒神志를 하는 효과가 있어서 神昏譫語, 人事不省 등의 증상에 사용할 수 있으며, 芳香성은 中焦를 따뜻하게 하여 濕邪를 없애고, 芳香성은 經絡을 소통시키며, 방향성은 위로 향하여 上部의 질환을 치료하며, 이 외에도 향취가 散表, 和五臟, 理氣活血 등의 작용도 있다¹³⁾고 하였다.

1) 主治 및 效能 기준 분류

초기의 芳香本草를 수록한 서적들은 효능과 주

8) 안점우 외. 香氣療法の 臨床應用과 韓醫學의 接近.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13(1):559-562, 2000.

9) 정용석 외. '香譜'에 나타난 향기요법에 대한 고찰. 한방재활의학회지 9(1):318-327, 1999.

10) 周朝進, 周慈海. 傳統香療法精華. 上海, 上海中醫藥大學出版社, pp15-16, 1998.

11) 周朝進, 周慈海. 傳統香療法精華. 上海, 上海中醫藥大學出版社, p17, 1998.

12) 周朝進, 周慈海. 傳統香療法精華. 上海, 上海中醫藥大學出版社, p18, 1998.

13) 國家中醫藥管理局中華本草編委會. 中華本草 1.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223, 1999.

치를 중심으로 芳香本草를 설명하였다. 이는 아직 본초학적 이론이 정립되기 이전이었기에 경험적으로 본초와 효능, 주치를 연관지어 설명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대표적인 香材 서적으로서 洪鄒의 『香譜』가 있고, 明代까지의 다양한 본초에 관한 모든 것을 정리하고 集成하고, 35종의 '香木'과 56종의 '芳草'를 구분하여 수록한 『本草綱目』이 있다.

(1) 香譜

宋代 洪鄒의 『香譜』는 香材에 관한 전문서적 중 하나로, 隋·唐을 거쳐 외국에서 安息香, 龍腦, 胡椒, 鬱金 등 향약재가 많이 들어와서 활발히 응용될 때의 저작이다. 『香譜』의 香之品 부분에는 당시에 사용되던 香藥을 『新修本草』, 『本草拾遺』, 『海藥本草』 등의 당시의 本草書를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龍腦香, 麝香, 沈水香(沈香), 白檀香, 蘇合香, 安息香, 鬱金香, 鷄舌香, 薰陵香, 詹糖香, 丁香, 波律香, 乳香, 木香, 降眞香, 艾納香, 甘松香, 零陵香, 茅香花, 白眼香, 雀頭香, 藿香, 蘭香, 芳香(白芷), 穰香(杜冲), 薰香, 白膠香, 都梁香(澤蘭), 甲香, 白茅香, 必栗香, 兜婁香, 搗車香, 兜納香, 耕香, 木蜜香, 迷迭香 등이 기록되어 있어, 우리가 현재에도 많이 사용하는 芳香性本草 들의 대부분이 이때 들어왔으며,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초들은 대부분 脾胃肺經으로 歸經하였으며 心經과 肝經으로 歸經하는 것도 있었다. 效能은 風毒이나 風水腫毒, 風腫, 風疹 등에 관한 약이 10여종 되었으며, 辟邪나 辟瘟, 惡氣, 鬼神 등을 막는 약이 23여종 되었으며, 心腹痛에 관한 약이 12종, 蟲을 없애는 약이 9종, 腹冷, 大腸泄 등을 없애는 것이 있었다. 효능면에서 볼 때 脾胃와 피부와 관련된 질환에 주로 응용하였고, 또한 전염병을 막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味는 辛味가 17종으로 가장 많았으며, 甘味, 苦味, 鹹味도 있었다¹⁴⁾.

『香譜』를 지은 洪鄒은 그 당시 교역되었던 수

많은 芳香性本草의 종류, 香과 관련된 기이한 이야기, 사용법들을 서술하였고, 그 사용은 腹痛泄瀉 등 소화기문제나 外邪로 인한 瘟疫 등의 질병 등에 국한되어 사용되었지만, 당시의 芳香性本草를 집대성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香譜』에 수록된 本草들을 효능, 주치 위주로 정리를 해보면, 風毒, 風水腫毒, 風腫, 風疹에는 龍腦香, 麝香, 沈水香, 白檀香, 鷄舌香, 薰陵香, 丁香, 乳香, 白膠香, 薰陵香 등을 응용하였고, 辟邪, 辟瘟, 辟惡, 殺鬼에는 麝香, 沈水香, 白檀香, 蘇合香, 安息香, 鬱金香, 鷄舌香, 薰陵香, 波律香, 木香, 降眞香, 艾納香, 甘松香, 零陵香, 茅香花, 白茅香, 必栗香, 兜婁香, 耕香, 木蜜香, 迷迭香 등의 본초를 응용하였으며, 心腹痛, 鎮心, 嘔吐, 霍亂의 증상에는 龍腦香, 白檀香, 安息香, 鬱金香, 鷄舌香, 丁香, 甘松香, 零陵香, 茅香花, 白茅香, 兜婁香, 耕香을 사용하고, 去蟲에는 龍腦香, 白檀香, 蘇合香, 波律香, 木香, 艾納香, 藿香, 蘭香, 芳香을, 腹冷, 大腸泄에는 乳香, 艾納香, 白茅香, 兜納香 등을 활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香譜』에서 主治별로 分類한 芳香本草

主治	本草
風毒, 風水腫毒, 風腫, 風疹	龍腦香, 麝香, 沈水香, 白檀香, 鷄舌香, 薰陵香, 丁香, 乳香, 白膠香, 薰陵香
辟邪, 辟瘟, 辟惡, 殺鬼	麝香, 沈水香, 白檀香, 蘇合香, 安息香, 鬱金香, 鷄舌香, 薰陵香, 波律香, 木香, 降眞香, 艾納香, 甘松香, 零陵香, 茅香花, 白茅香, 必栗香, 兜婁香, 耕香, 木蜜香, 迷迭香
心腹痛, 鎮心, 嘔吐, 霍亂	龍腦香, 白檀香, 安息香, 鬱金香, 鷄舌香, 丁香, 甘松香, 零陵香, 茅香花, 白茅香, 兜婁香, 耕香
去蟲	龍腦香, 白檀香, 蘇合香, 波律香,

14) 정용석 외. '香譜'에 나타난 향기요법에 대한 고찰. 한방재활의학회지 9(1):318-327, 1999.

	木香, 艾納香, 藿香, 蘭香, 芳香
腹冷, 大腸泄	乳香, 艾納香, 白茅香, 兜納香

(2) 本草綱目

明代 李時珍의 『本草綱目』은 明代까지의 대부분의 本草書를 총망라하여 정리 集成한 저작으로 본초를 ‘水, 火, 金石, 草, 菜, 果, 木, 腹器, 虫, 鱗, 介, 禽, 獸’ 등의 분류기준으로 임상에 응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35종의 ‘香木’과 56종의 ‘芳草’를 구분하여 수록하고 있다. 하지만 방향본초의 가장 큰 특징인 향을 중심으로 한 약성 설명은 거의 없었고 효능과 주치 위주로 약성을 설명하였다.

한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이름에 ‘香’字 가 들어간 본초를 본초학적으로 정리하였다¹⁵⁾. 여기에는 瑞香, 鬱金香, 茅香, 白茅香, 排草香, 迷迭香, 搗車香, 艾納香, 兜納香, 錢香, 藿香, 薰草, 蜘蛛香, 甘松香, 龍腦香, 沈香, 蜜香, 丁香, 檀香, 降眞香, 穠香, 楓香脂, 乳香, 安息香, 蘇合香, 詹糖香, 篤耨香, 麝香 등 28종의 향이 강한 약물이 주로 분류되었으며, 주로 根이나 花類가 주를 이루고 麝香처럼 동물약도 있다. 이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氣味에 있어서 甘平, 辛溫, 辛苦, 甘溫, 辛平 등 주로 辛味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대부분 독성은 없었고, 주치를 보면 治惡氣, 治鬼氣, 辟溫, 辟邪 등 鬼神이나 傳染病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약물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風水腫毒, 風疹 등을 치료하는 약물들이 있고, 心腹痛이나 虫을 없애는 약물, 脾胃를 편안하게 하고 元氣를 북돋는 약물, 그리고 鼻息肉이나, 소아의 客悟 증상에도 상용된 약물들이 있었다. 향이 강한 본초도 다른 본초와 마찬가지로 활용 범위가 광범위 하기는 하지만 『本草綱目』 시대에서는 그 사용이 제한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주요증상을 중심으로 다시 정리해보면 風熱腫毒, 風水腫毒, 癩疹, 風陽浮腫 등 증상에는

瑞香, 藿香, 零陵香, 丁香, 白檀香, 紫檀香, 穠香, 楓香脂, 乳香 등이 사용되었고, 辟邪, 辟惡, 辟溫, 殺鬼의 용도로는 鬱金香, 白茅香, 搗車香, 迷迭香, 艾納香, 兜納香, 沈香, 蜜香, 排草香, 白檀香, 安息香, 蘇合香, 詹糖香, 麝香 등의 본초가 응용되었고, 去虫의 용도로는 鬱金香, 搗車香, 艾納香, 蘇合香, 白檀香, 安息香, 麝香 등을 사용하였으며, 心腹痛, 霍亂의 증상에는 搗車香, 零陵香, 沈香, 白檀香, 安息香, 麝香을, 腹內冷痛, 泄痢, 嘔吐, 大腸脫에는 茅香, 甘松香, 沈香, 丁香을, 鼻息肉, 客悟에는 零陵香, 龍腦香, 降眞香, 麝香을 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¹⁶⁾.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本草綱目』에서 主治별로 分類한 芳香本草

主治	本草
風熱腫毒, 風水腫毒, 癩疹, 風陽浮腫	瑞香, 藿香, 零陵香, 丁香, 白檀香, 紫檀香, 穠香, 楓香脂, 乳香
辟邪, 辟惡, 辟溫, 殺鬼	鬱金香, 白茅香, 搗車香, 迷迭香, 艾納香, 兜納香, 沈香, 蜜香, 排草香, 白檀香, 安息香, 蘇合香, 詹糖香, 麝香
去虫	鬱金香, 搗車香, 艾納香, 蘇合香, 白檀香, 安息香, 麝香
心腹痛, 霍亂	搗車香, 零陵香, 沈香, 白檀香, 安息香, 麝香
腹內冷痛, 泄痢, 嘔吐, 大腸脫	茅香, 甘松香, 沈香, 丁香
鼻息肉, 客悟	零陵香, 龍腦香, 降眞香, 麝香

15) 안점우 외. 香氣療法の 臨床應用과 韓醫學의 接近.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13(1):563-575, 2000.

16) 안점우 외. 香氣療法の 臨床應用과 韓醫學의 接近.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13(1):563-575, 2000.

(3) 現代 中醫學 分類

중국에서 최근에 나온 芳香療法 서적에서는 현대 中醫에서 사용하고 있는 본초의 분류방법을 응용하여 芳香性 本草를 분류하였다. 이 분류 또한 효능을 중심으로 한 분류방법에 속한다. 芳香解表藥으로는 桂枝, 紫蘇葉, 生薑, 香薷, 荊芥, 防風, 白芷, 細辛, 藁本, 辛夷, 蔥白, 薄荷, 菊花, 柴胡, 枇杷葉을 분류하였고, 芳香清熱藥으로는 金銀花, 野菊花, 魚腥草, 青蒿를 분류하였고, 芳香化濕藥으로는 藿香, 澤蘭, 蒼朮, 砂仁, 白豆蔻를 분류하였고, 芳香溫裏藥으로는 肉桂, 吳茱萸, 茴香, 高良薑, 花椒, 胡椒, 丁香, 華撥, 華澄茄, 艾葉, 肉豆蔻를 분류하였고, 芳香理氣藥으로는 陳皮, 青皮, 木香, 沈香, 香附, 香櫞(레몬)을 분류하였으며, 芳香活血藥으로는 當歸, 川芎, 乳香, 沒藥, 莪朮, 澤蘭, 蒲黃을 분류하였고, 芳香開竅藥으로는 麝香, 冰片, 蘇合香, 石菖蒲를 분류하였고, 기타 방향약으로는 白朮, 芫荽子, 芸香草, 龍涎草, 青木香, 零陵香, 甘松, 樟木, 八角茴香, 迷迭香(로즈마리), 檀香을 분류하였다¹⁷⁾. 이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中醫傳統芳香療法』에서 芳香本草 分類

分類	本草
芳香解表藥	桂枝, 紫蘇葉, 生薑, 香薷, 荊芥, 防風, 白芷, 細辛, 藁本, 辛夷, 蔥白, 薄荷, 菊花, 柴胡, 枇杷葉
芳香清熱藥	金銀花, 野菊花, 魚腥草, 青蒿
芳香化濕藥	藿香, 澤蘭, 蒼朮, 砂仁, 白豆蔻
芳香溫裏藥	肉桂, 吳茱萸, 茴香, 高良薑, 花椒, 胡椒, 丁香, 華撥, 華澄茄, 艾葉, 肉豆蔻
芳香理氣	陳皮, 青皮, 木香, 沈香, 香附, 香櫞(레몬)

藥	
芳香活血藥	當歸, 川芎, 乳香, 沒藥, 莪朮, 澤蘭, 蒲黃
芳香開竅藥	麝香, 冰片, 蘇合香, 石菖蒲
其他芳香藥	白朮, 芫荽子, 芸香草, 龍涎草, 青木香, 零陵香, 甘松, 樟木, 八角茴香, 迷迭香(로즈마리), 檀香

이러한 방식의 분류방법은 현대 中醫學의 효능을 중심으로 한 本草 分類 체계에서 芳香性이 강한 본초들을 따로 선별한 것으로, 芳香性을 가지고 있는 본초가 단지 脾胃에 작용하여 運化를 돕고 化濕하고, 穢濁한 것을 물리친다는 예전의 총괄적인 해석에서 벗어나서, 芳香性本草의 解表, 清熱, 化濕, 溫裏, 利氣, 活血, 開竅하는 작용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밝혔다. 이는 또한 일반적으로 湯劑를 처방하듯이 처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분류 정리한 듯하여, 처방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정리되었다.

2) 香을 基準으로 한 本草 分類 및 藥性 研究 한의학에서 本草의 藥性和 藥理를 연구하는 방법은 서양의 분석적이고 화학적인 방법과는 다르다. 唐宗海는 『本草問答』에서 本草의 產地, 채취 시기, 형태, 색깔, 기미 등을 종합하여 그 특성이 偏重된 것을 보아 그 藥性을 알 수 있다¹⁸⁾고 언급하였듯이, 한의학에서 藥性연구는 그 본초의 특징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本草의 香은 그 본초가 발현하는 氣의 작용으로, 『本草衍義』에서는 “氣라는 것은 香臭의 氣”¹⁹⁾라고 설명하여 香氣가 있는 本草는

17) 林慧光. 中醫傳統芳香療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23-55, 2010.

18) 唐宗海. 本草問答. 北京, 學苑出版社, p37, 2011.

19) 寇宗奭. 本草衍義. 上海, 上海中醫學院 中醫文獻研究所, p234, 1990. “凡稱氣者, 卽是香臭之氣”

그 氣가 발산되는 것이고, 藥物의 氣가 많고 動的이기 때문에 發散되는 것이라고 하였고²⁰⁾, 『本經疏證』에는 “모든 萬物은 하늘에서 氣를 받고 땅에서 味를 받는다. 색깔과 향기도 비록 萬物에서 나오지만, 氣味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香氣는 氣에서 나오고 색깔은 맛에서 나온다. 이것들이 인체로 들어가면, 하늘에서 받은 것은 陽으로 가고, 땅에서 얻은 것은 陰으로 간다.”²¹⁾고 언급하여 本草 또한 하늘과 땅의 영향을 받은 만물의 일부로써, 本草의 香氣가 인체에 들어가서 氣의 흐름을 조절하는 特性²²⁾을 가진다고 이해할 수 있다. 즉 寇宗奭은 氣味論을 물질적인(地) 형태에 근거한 부분은 味라 하고, 물질에 근거해서 氣化되는 香은 氣라 본 것이다. 일반적으로 향을 후각으로 직접 맡을 수 있는 부분만을 한정하여 이해하고 있지만, 한의학에서는 모든 本草에서 발현될 수 있는 氣化 부분을 香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간 생명현상은 현상적인 측면에서 精氣神으로 표현²³⁾되며, 香은 無形之氣로써 氣의 작용이 강하고, 이러한 氣의 작용은 味에 비해서 인간의 사고 및 생명작용의 精華인 神에 영향을 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렇듯 香은 本草의 藥性を 연구하는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이며, 이러한 香을 기준으로 약성을 연구한 대표적인 서적은 明代의 劉文泰의 『本草品彙精要』이다. 『本草品彙精要』에서는 本草의 약성을 설명할 때 ‘名, 苗, 地, 時, 收, 用, 質, 色, 味, 性, 氣, 臭 ……」 등 24가지의 특성을 중요시 하였는데, 이 중에 香(臭)을 중요한 특징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本草品彙精要』는 明代의 劉文泰의 저서이며 각 本草마다 ‘名, 苗, 地, 時, 收, 用, 質, 色, 味, 性, 氣, 臭 ……」 등 24가지 기준으로 서술하고 있다. 여기에 본초의 향(臭)이 서술 기준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본초를 腥, 膻, 香, 臭, 朽의 5가지로 분류하였고, 일부 본초에서 臊焦의 향을 언급하였다. 腥은 비린 냄새를 의미하고, 膻은 누린 냄새를, 香은 우리가 맡기 향기로운 냄새를, 焦는 탄 냄새의 본초를 분류하였다. 臭와 朽의 경우 사전적 의미로는 각각 냄새나는 것과 썩은 냄새 나는 것으로 그 향이 大同小異한 것 같다. 하지만 이에 해당되는 본초의 냄새를 참고하여 살펴보면, 敗醬이 속해 있는 ‘臭’는 썩은 된장 냄새에 가까운 것 같고, 車前子, 草龍膽 등이 속해 있는 ‘朽’는 낙엽 등이 오래 되어 썩은 냄새에 가까운 냄새인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膻과 臊는 사전적으로는 모두 누린내로써 분류된 본초들을 살펴보았을 때 同類로써 따로 구분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鑛物藥이 주가 되는 玉石部에서는 주로 腥朽로 분류하였고, 草部와 木部에서는 香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朽과 腥으로 분류하였고, 毛蟲, 羽蟲, 鱗蟲 종류들은 주로 腥으로 분류하였다. 『本草品彙精要』에 수록된 本草들을 腥, 膻, 香, 臭, 朽의 5가지 향을 중심으로 다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腥은 다양한 향 중에서 비린내로써 腥으로 분류된 본초는 주로 玉石部의 일부와 草部 중에서 비린내가 나는 일부분과 羽蟲, 甲蟲의 종류가 많았다. 냄새를 거의 맡을 수 없는 玉石部의 광물들은 어떻게 腥으로 분류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腥으로 분류된 대부분의 본초들은 실지로 비린내에 가까운 향을 맡을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분류된 것으로 보이며 羽蟲, 甲蟲의 대부분이 腥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인다. 靈砂, 密陀僧, 自然銅, 黃精, 牛膝, 苦參, 芍藥, 牡蠣, 龜甲 등이 여기에 속한다(표 4).

20) 안한규 외. 本草問答에 나타난 形色氣味에 관한 고찰. 경원대학교 한의학 연구소 논문집 10:77-103, 2006.

21) 鄒澍. 本經疏證. 서울, 대성의학사, p331, 2001. “凡物氣稟乎天 味稟乎地 色與香則雖出於物 亦不能不囿於氣味 故香麗於氣 色麗於味. 其入於人身 則得於天者行陽 得於地者行陰 所謂從其類也.”

22) 안한규 외. 本草問答에 나타난 形色氣味에 관한 고찰. 경원대학교 한의학 연구소 논문집 10:77-103, 2006.

23) 김경신, 이수진, 김병수. 장기이식에 관한 한의학적 개념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4(4):571-579, 2010.

표 4. 『本草品彙精要』에서 腥으로 分類한 本草

玉石部	礬石, 綠礬, 柳絮礬, 石膽, 靈砂, 密陀僧, 生鐵, 鐵粉, 鋼鐵, 鐵精, 鐵漿, 馬銜, 車轄, 中膏, 車脂, 伏龍肝, 鍛石, 粉錫, 赤銅, 銅青, 井底沙, 石燕, 漿水, 地漿, 自然銅, 銅礦石, 蓬砂, 古文錢
草部	黃精, 牛膝, 青黛, 漏蘆, 丹參, 飛廉, 地膚子, 栝蒌根, 苦參, 芍藥, 赤芍藥, 秦艽, 百合, 酸漿, 大青, 水萍, 王瓜, 地榆, 海藻, 昆布, 百部根, 垣衣, 幹苔, 梔葵, 土馬鬃, 常山, 蜀漆, 商陸, 扁蓄, 野狼毒
木部	槐花, 榆皮, 柏木, 秦皮, 皂莢
獸部	阿膠, 虎骨
毛蟲	狐陰莖, 獺肝, 膏, 鼯鼠, 野豬黃, 豹皮, 野狼肉, 敗鼓皮, 塔刺, 露蜂房, 牡鼠, 雀甕
羽蟲	丹雄雞, 白雄雞肉, 白鵝膏, 肪, 雁肪, 魚狗, 雀卵, 伏翼, 白鶴血, 烏鴉, 練鵲, 雄鵲, 鷓鴣屎, 鶴骨, 白鴿肉, 百勞毛, 慈鴉, 鶻嘲, 天鵝, 蜂子, 牡蠣, 龜甲, 秦龜, 桑螵蛸, 蟬花, 原蠶蛾, 蠶蛻, 蛻螂, 五靈脂, 螻蛄, 馬陸, 鸚骨
甲蟲	石決明, 海蛤, 文蛤, 蠶魚, 蟹甲, 蟹, 蝸牛, 紫貝, 蠶, 馬刀, 蛤蜊, 蚌蛤, 貝子, 石蠶, 鮫鯉甲, 珂, 甲香, 蝸蠃肉
鱗蟲	鱻魚, 鯽魚, 鱗魚, 石龍子, 鮫魚皮, 鱖魚, 青魚, 鮠魚, 鱸魚, 魚, 蚌蛇膽, 蛇蛻, 白頸蚯蚓, 烏蛇, 勒魚肉
裸蟲	螭螬, 烏賊魚骨, 白僵蠶, 蝦蟆, 蜘蛛, 水蛭, 蛙
介蟲	蜈蚣
果部	銀杏
穀部	青小豆, 大豆黃卷, 赤小豆, 扁豆, 白豆, 豌豆
菜部	邪蒿, 蕪菁, 白芥, 菘, 苦菜, 蜀葵, 苦苣, 苜蓿, 蓼實, 蔥實, 白苣, 鹿角菜, 東風菜, 胡瓜葉, 白冬瓜, 苦瓠, 馬齒莧, 藜蘆, 落葵

臙(臙)은 다양한 향 중에 누린내로써 臙과 臙로 분류된 본초는 草部, 人部, 獸部, 毛蟲에서 몇 가지 종류가 있었다. 鹿茸, 山羊肉 등이 여기에 속한다(표 5).

표 5. 『本草品彙精要』에서 臙(臙)으로 分類한 本草

草部	葳蕤, 徐長卿, 葳蕤, 徐長卿
人部	溺白
獸部	鹿茸, 臙臙臙, 毛蟲
毛蟲	臙臙臙, 山羊肉

香은 다양한 향 중에서 우리가 맡기 좋아하는 향기에 가까운 것으로써 草部和 木部가 대부분 香의 범주에 속하고 일부 果部和 穀部가 여기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菊花, 柴胡, 獨活, 羌活, 升麻, 木香, 青木香 등 芳香本草의 대부분과 人參, 甘草, 生地黃, 木通, 玄參, 知母 등 본초의 많은 부분이 이 香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6).

표 6. 『本草品彙精要』에서 香으로 分類한 本草

玉石部	菊花水
草部	菖蒲, 菊花, 人參, 甘草, 生地黃, 幹熟地黃, 蒼術, 白術, 菟絲子, 柴胡, 獨活, 羌活, 升麻, 木香, 青木香, 薏苡仁, 益智子, 草果, 遠志, 細辛, 巴戟天, 白蒿, 淹闔子, 薯蕷, 卷柏, 藤蕪, 蒺藜, 防風, 蒲黃, 香蒲, 續斷, 營實, 天名精, 五味子, 旋花, 蘭草, 忍冬, 茵陳蒿, 杜若, 白花藤, 葛根, 葛粉, 當歸, 木通, 玄參, 知母, 白芷, 黃芩, 茅根, 紫菀, 紫草, 前胡, 鬱金, 紫參, 杜蘅, 白薇, 女葳, 艾葉, 鼠粘子, 大薊, 小薊, 澤蘭, 防己, 天麻, 高良薑, 紅藍花,

	薑黃, 葦芨, 蘿摩子, 鬱金, 延胡索, 肉豆蔻, 補骨脂, 零陵香, 縮砂蜜, 蓬莪術, 積雪草, 水香棧, 葦澄茄, 胡黃連, 紅豆蔻, 蒔蘿, 甘松香, 女菀, 茅香花, 使君子, 白豆蔻, 大黃, 桔梗, 草蒿, 旋複花, 白芨, 藿香, 威靈仙, 八角茴香, 蘆根, 仙茅, 骨碎補, 連翹, 胡蘆巴, 穀精草, 夏枯草
木部	桂, 松脂, 酸棗, 五加皮, 蔓荊實, 辛夷, 桑寄生, 丁香, 沉香, 乳香, 檀香, 蘇合香, 安息香, 樟腦, 吳茱萸, 梔子, 枳殼, 枳實, 烏藥, 合歡, 天竺, 黃, 密蒙花, 牡丹, 蘆薈, 蜀椒
獸部	麝香, 牛黃
毛蟲	麝
羽蟲	石蜜, 蜜蠟
裸蟲	香蟲, 桂蠹蟲
果部	藕實莖, 蓬, 烏芋, 慈菇, 甘蔗, 石蜜, 沙糖, 青皮, 大棗, 栗子, 橙子皮, 櫻桃, 梅實, 木瓜實, 柿, 枇杷葉, 荔枝子, 乳柑子, 桃核仁, 杏核仁, 安石榴, 梨, 林檎, 楊梅, 胡桃, 海松子, 柰, 庵羅果, 橄欖, 榛子, 龍眼, 榧, 香圓, 馬檳榔, 八簷仁, 株子, 葡萄, 芡實, 獼猴桃
穀部	胡麻, 巨勝子, 胡麻油, 白油麻, 飴糖, 灰, 酒, 粟米, 粳米, 青粱米, 黍米, 丹黍米, 白粱米, 黃粱米, 米, 春杵頭細糠, 稷米, 醬, 陳廩米, 秠米, 豉, 醋
菜部	胡葵, 邪蒿, 荷蒿, 石胡葵, 薺, 羅勒, 生薑, 幹薑, 香薷, 薄荷, 蘑菇, 香菜, 天花, 馬芹子, 芸苔, 甜瓜, 瓜蒂, 越瓜, 醃菘菜, 荳子, 荊芥, 紫蘇
草部	水英, 麗春草, 撒馥蘭

臭는 다양한 향 중에서 썩은 된장 냄새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며 玉石部の 일부와 草部の 일부, 羽蟲의 일부가 여기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石硫黃, 雌黃, 蛇床子, 敗醬, 蕪荑 등이 여

기에 속한다(표 7).

표 7. 『本草品彙精要』에서 臭로 分類한 本草

玉石部	石硫黃, 雌黃, 砒霜, 特生石
草部	芫蔚子, 藍實, 蛇床子, 敗醬, 馬蘭, 幹漆, 蕪荑
木部	栲木皮
毛蟲	驢屎
羽蟲	燕屎, 天鼠屎, 孔雀屎, 玳瑁, 蜚蠊
鱗蟲	鮑魚
穀部	腐婢
菜部	韭歸, 薤, 葫, 蒜, 葫蔥

朽는 다양한 향 중에서 썩은 냄새에 가까운 것으로서 玉石部の 대부분과 草部の 일부분이 여기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丹砂, 芒硝, 赤石脂, 石膏, 天門冬, 麥門冬, 車前子, 山藥, 澤瀉, 草龍膽, 石斛, 附子, 烏頭, 半夏, 枸杞, 地骨皮, 茯苓, 杜仲 등이 여기에 속한다(표 8).

표 8. 『本草品彙精要』에서 朽로 分類한 本草

玉石部	丹砂, 雲母石, 玉屑, 玉泉, 硝石, 芒硝, 樸硝, 生硝, 滑石, 禹餘糧, 太一餘糧, 白石英, 紫石英, 青石脂, 赤石脂, 黃石脂, 黑石脂, 白青, 綠青, 扁青, 石中黃子, 無名異, 菩薩石, 娑娑石, 爐甘石, 石膏, 凝水石, 石鍾乳, 殷孽, 孔公孽, 石花, 石床, 長石, 理石, 磁石, 玄石, 陽起石, 礪石, 桃花石, 石蟹, 金屑, 銀屑, 生銀, 水銀, 珊瑚, 食鹽, 大鹽, 鹵鹹, 戎鹽, 綠鹽主, 太陰玄精, 黑羊石, 白羊石, 石蛇, 鑛墨, 鉛丹, 鉛錫灰, 東壁土, 錫
-----	---

	銅鏡鼻, 代赭, 井華水, 臘雪, 泉水, 白堊, 冬灰, 青琅, 金牙, 金星石, 握雪石, 梁上塵, 土陰孽, 鍛灶灰, 礫石, 薑石, 麥飯石, 井泉石, 蒼石, 花乳石, 石蠶, 白瓷瓦屑, 烏古瓦, 不灰木, 鉛霜
草部	天門冬, 麥門冬, 車前子, 山藥, 澤瀉, 草龍膽, 石斛, 白芝, 黃芝, 紫芝, 絡石, 決明子, 茜根, 千歲汁, 景天, 沙參, 雲實, 王不留行, 麻黃, 通草, 蠶實, 瞿麥, 貝母, 淫羊藿, 狗脊, 石龍芮, 京三稜, 白藥, 鱧腸, 爵床, 附子, 烏頭, 天雄, 半夏, 虎掌, 葶藶, 射幹, 甘遂, 白蘘, 何首烏, 天南星, 白頭翁, 馬兜鈴, 山豆根, 三白草, 雀麥, 木賊, 山慈菇, 燈心草, 馬勃, 海金沙
木部	枸杞, 地骨皮, 茯苓, 杜仲, 女貞實, 竹葉, 檳榔, 麒麟竭, 山茱萸, 豬苓, 海桐皮, 大腹, 虎杖根, 棕櫚子, 木槿, 芫花
獸部	龍骨, 犀角
果部	覆盆子, 芋, 椰子皮
穀部	生大豆, 小麥, 大麥, 麥, 蕎麥, 罌子粟
菜部	冬葵子, 芡實, 白荷, 葫蘆, 雍菜

焦는 다양한 향 중에서 탄내에 가까운 것으로써 草部の 黃連, 括藹實, 大戟, 牽牛子와 木部の 巴豆가 여기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9).

표 9. 『本草品彙精要』에서 焦로 分類한 本草

草部	黃連, 括藹實, 大戟, 牽牛子
木部	巴豆

이와 같이 『本草品彙精要』에 수록된 腥, 膻(臊), 香, 臭, 朽의 5가지 향을 기준으로 한 본초 분류 중에서 냄새가 거의 없는 鑛物藥의 종류를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하였는지 언급이 없어서

잘 알기 힘들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本草들은 주로 香의 범주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²⁴⁾.

또한 본 서적에서는 이들 5가지의 향의 분류가 인체의 臟腑나 經絡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에 관한 언급은 없다. 하지만 『素問·金匱真言論』, 『本草備要』에서 언급한 五臭와 五臟, 經絡과의 연관성을 보았을 때²⁵⁾, 5가지 향의 범주를 臟腑나 經絡의 관점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에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III. 考 察

향을 중심으로 本草를 분류 할 때는 두 가지 관점으로 나뉘 볼 수 있다. 하나는 약물의 주치 및 사용 예가 향기를 위주로 사용되었던 약들을 모은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本草의 원리 분석을 위해 本草書에 기재된 本草를 몇 종류의 향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자는 실제 경험적이고 임상적인 주치를 중심으로 접근하였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미처 설명하지 못한 약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후자와 같이 향을 기준으로 本草 약성 원리를 연구하려고 했던 경우에는 대표적인 本草 원리인 氣味論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논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두 가지 관점 모두는 한의학계에서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芳香性本草의 임상 효능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도 중요하지만 나아가 향을 기준으로 모든 本草를 연구하여 약성 연구 이론을 풍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本草의 기본 이론은 氣味論이 가장 중심이 되지만 形, 色, 產, 時, 歸經 등 모든 本草의 특성을 고려해서 본초의 주치효능을 분석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香에 대한 기준을 채용하여 본초의 주치효능을 설명한 것들은 부분적이며 전면적

24) 劉文泰. 本草品彙精要(校注研究本). 北京, 華夏出版社, pp3-608, 2004.

25) 엄지태, 김경신, 김병수. 한의학에서 바라본 향의 인지 과정과 인체 작용.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4(6):935-941, 2010.

인 이론적 체계에 유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본초의 이론적 체계에 향이 갖고 있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미론적 관점과 어떤 부분에서 다르고 어떤 경향이 강한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

일반적인 氣味論은 味를 위주로 서술되고 있으며 味는 물질 장부에 대한 이론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氣는 寒熱溫涼의 藥性으로, 임상적 이론분석에서는 寒熱 정도만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향을 위주로 藥性을 분석한다는 것은 本草의 氣化能力과 관련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本草는 물질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이런 氣化能力의 영향으로 후각을 통해 보다 가볍고 형이상학적인 부분에 영향을 더욱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香氣治療 역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치료로서 이러한 추측이 더욱 신빙성있게 이해된다. 그리고 『本經疏證』에서도 언급한 것²⁶⁾ 처럼 本草의 香臭가 인체에 들어가서 氣의 흐름을 조절하는 特性²⁷⁾을 가진다고 이해할 수 있다. 즉, 寇宗奭은 氣味論을 물질적인(地) 형태에 근거한 부분은 味라 하고, 물질에 근거해서 氣化되는 香은 氣라 본 것이다. 일반적으로 향을 후각으로 직접 맡을 수 있는 부분만을 한정하여 이해하고 있지만, 한의학에서는 모든 本草에서 발현될 수 있는 氣化부분을 香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간 생명현상은 현상적인 측면에서 精氣神으로 표현²⁸⁾되는데, 香은 無形之氣로써 氣의 작용이 강하고, 이러한 氣의 작용은 味에 비해서 인간의 사고 및 생명작용의 精華인 神에 영향을 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물질의 기초인 精에 비해 氣나 神은 에너지 또는 정신적 측면의 개념이 강하다. 또한 氣味論적인 입장에서 五味는 물질적 기초

에 기반하므로 五臟의 물질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작용하리라 추측되는 반면에 香은 無形之氣로써 氣의 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인체에서 氣에 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며 나아가 五臟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심신안정의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香은 氣적인 작용과 조화를 통하여 神까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처럼 本草에서 맡을 수 있는 香의 특성 때문에 本草의 품질을 감별하거나 良品을 가려낼 때 香이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香의 氣적인 작용과 조화를 통하여 神까지 미치는 香의 특성을 응용하여 한방 신경정신과 영역의 연구에 적극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IV. 結 論

한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香을 치료에 적극적으로 응용해 왔고, 여기에 주로 사용된 芳香性本草에 관한 연구와 저작도 다양하다. 이러한 향을 중심으로 한 본초 연구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한의학에서 사용한 香氣療法의 방법은 다양하여 약재를 태워서 향을 맡는 熏法을 중심으로 香袋法, 香枕法, 香衣法, 香瓶法, 香脂法, 香汁法, 香豆法 등 다양한 방법으로 芳香性本草를 이용하여 치료에 응용하였다. 이러한 香氣療法에 사용한 芳香性本草에 관한 연구 서적도 다양한데 洪鄒의 『香譜』가 대표적이고, 이 외에도 본초의 香을 중요시한 서적은 明代의 『本草品彙精要』와 『本草綱目』 등에 잘 나타나 있다. 芳香性本草의 효능과 임상 예를 중심으로 약성을 연구한 것으로 芳香性本草의 주치는 주로 脾胃와 피부와 관련된 질환에 주로 응용하였고, 또한 전염병을 막기 위한 용도로 응용되었고 두 서적에 수록된 본초의 효능과 주치는 大同小異하였다. 현대 中醫學의 芳香療法 서적에서 본초를 분류한 방법은 현대 中醫學의 효능을 중심으로 한 本草分類 체계에서 芳香性이 강한 본초들을 따로 선별한 것으로 氣味論과 歸經論의 관점을 포함하여 좀 더 이론적인 바탕을 두고 종합적으로 본초를 설명하

26) 鄒澍. 本經疏證. 서울, 대성의학사, p331, 2001. “凡物氣稟乎天 味稟乎地 色與香則雖出於物 亦不能不囿於氣味 故香麗於氣 色麗於味. 其入於人身 則得於天者行陽 得於地者行陰 所謂從其類也.”

27) 안한규 외. 本草問答에 나타난 形色氣味에 관한 고찰. 경원대학교 한의학 연구소 논문집 10:77-103, 2006.

28) 김경신, 이수진, 김병수. 장기이식에 관한 한의학적 개념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4(4):571-579, 2010.

고 있는 것이 조금 다르다.

반면에 향을 기준으로 본초 약성을 연구한 서적은 劉文泰의 『本草品彙精要』가 대표적인데, 각 본초를 설명할 때 香(臭)에 대해 설명한 항목이 따로 있고, 腥, 膻, 香, 臭, 朽의 5가지 향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여 다른 본초서적과는 다르게 본초의 香을 아주 중요시 하였다. 腥은 비린내로써 腥으로 분류된 본초는 주로 玉石部의 일부와 草部 중에서 비린내가 나는 일부분과 羽蟲, 甲蟲의 종류가 많았다. 膻은 누린내로써 膻으로 분류된 본초는 草部, 獸部, 毛蟲에서 몇 가지 종류가 있었다. 香은 다양한 향 중에서 우리가 맡기 좋아하는 향기에 가까운 것으로써 草部和 木部가 대부분 香의 범주에 속하고 일부 果部和 穀部가 여기에 속하였다. 臭에는 玉石部의 일부와 草部의 일부, 羽蟲의 일부가 여기에 속하며, 朽는 다양한 향 중에서 썩은 냄새에 가까운 것으로써 玉石部의 대부분과 草部의 일부분이 여기에 속하였다.

학회지 24(6), 2010.

10. 앤드류 스텐웨이, 박지명. 자연요법백과. 서울, 하남출판사, 1994.
11. 劉文泰. 本草品彙精要(校注研究本). 北京, 華夏出版社, 2004.
12. 이세희. 아로마테라피. 서울, 홍익제, 1995.
13. 정용석, 오민석, 송태원. '香譜'에 나타난 향기요법에 대한 고찰. 한방재활의학회지 9(1):318-327, 1999.
14. 周朝進, 周慈海. 傳統香療法精華. 上海, 上海中醫藥大學出版社, 1998.
15. 鄒澍. 本經疏證. 서울, 대성의학사, 2001.
16. 孫思邈. 千金要方. 서울, 대성문화사, 1995.
17. 龔廷賢. 壽世保元. 台北, 更業書局有限公司, 1975.

參考文獻

1. 寇宗奭. 本草衍義. 上海, 上海中醫學院 中醫文獻研究所, 1990.
2. 國家中醫藥管理局中華本草編委會. 中華本草 1.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9.
3. 김경신, 이수진, 김병수. 장기이식에 관한 한의학적 개념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4(4), 2010.
4. 唐宗海. 本草問答. 北京, 學苑出版社, 2011.
5. 林慧光. 中醫傳統芳香療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0.
6. 손숙영. 향기요법. 서울, 글이랑, 1987.
7. 안점우, 김정연, 김동일. 香氣療法の臨床應用과 韓醫學的 接近.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13(1), 2000.
8. 안한규, 이영중. 本草問答에 나타난 形色氣味에 관한 고찰. 경원대학교 한의학 연구소 논문집 10, 2006.
9. 엄지태, 김병수, 김경신. 한의학에서 바라본 향의 인지 과정과 인체 작용. 동의생리병리